

“개인 풋살화에 태극기 붙은 유니폼…벌써 설레요”

2026 희망을 잇다

<1>남구 정신장애인 풋살팀 ‘클라우드 FC’

세상은 때때로 거대한 벽처럼 느껴진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뜻하지 않은 실패를 마주하고, 관계 단절에 아파하며, 내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에 짓눌리기도 한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아주 작은 빛조차 이정표가 되듯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다시 일어설 이유와 손을 내미는 온기가 존재한다. 이에 본보는 광주·전남 지역의 희망을 잇는 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들을 을 한해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주



최근 광주 서구 유촌동 한 야외 풋살장에서 남구 소재 사회 복귀 및 자활 훈련 시설 요한빌리지를 이용하는 20~30대로 구성된 정신장애인 풋살팀 ‘클라우드 FC’ 소속 선수 10여명이 열띤 훈련을 하고 있다.

을 드러냈다.

훈련을 마친 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완료 소식을 들은 선수들 역시 너도나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선수들은 “코치님께 전문적으로 풋살을 배우고 태극기가 붙은 유니폼을 입고 대회를 나갈 생각에 벌써 기대된다”며 “우리의 앞날에 투자해 주신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 덕에 클라우드 FC는 목표를 이를 수 있게 됐지만, 현재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마주한 상태다.

오는 6월 세네갈에서 열리는 세계 대회는 세계정신장애인 풋살협회가 주최하는데, FIFPA(국제축구연맹) 승인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복지사는 “많은 이들이 도움으로 대회 출전이 가능해졌으나, 정작 대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국내·외를 가지 않고 정신장애인 풋살팀과의 친선 경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참가했던 드림 아시아컵을 주최한 ‘아시아 정신장애인 풋살연맹’과도 주기적으로 대회 개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반드시 세계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이 복지사는 “클라우드 FC 선수들에 게 풋살은 사회와 단절된 경험을 극복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선수’로 당당하게 활동하며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매개”라며 “정신장애인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사회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서형우기자

재활시설 이용 20~30대 2022년 결성

코치·단체 유니폼·풋살화 無 ‘열악’

고향사랑기부 2개월만에 목표 달성

정기 훈련 확대·조직 체계화 정비

“전문 코치님께 배우고 태극기가 붙은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다니… 벌써 기대되고 감사해요”

최근 광주 서구 유촌동 한 야외 풋살장에서 만난 클라우드 FC 소속 선수 김모(20대)씨는 이같이 말했다.

김씨와 같은 팀에서 활동하는 10여명의 선수들은 훈련 전 각자 몸을 푼후 힘찬 기합을 내뱉었다.

잠시 후 연습 경기에 나선 이들은 “쌩~”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을 힘차게 주고 받으며 풋살장 곳곳을 빠르게 누볐다.

하늘의 구름처럼 자유롭게 높이 날아 오르겠다는 의미가 담긴 클라우드 FC는 남구 소재 사회 복귀 및 재활 훈련 시설인 요한빌리지를 이용하는 20~30대 청년들이 모여 2022년 8월 결성했다.

현재 소속 선수는 16명으로 이들 모두 정신장애인이다. 이들의 훈련과 외부 일정 등을 돋기 위해 선수의 부모와 요한빌리지 관계자 등 6명이 운영진으로 함께하고 있다.

결성 이듬해부터 매년 전국 대회에 참여해 온 클라우드 FC는 지난해 1월에는 자비를 들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1회 정신장애인 아시아 풋살대회(드림 아시아컵)’에 출전했다.

이후 올해 6월 열리는 세네갈 세계 대회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임해 왔지만, 열악한 재정과 코치 부재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를 전해 들은 남구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모금에 나섰고, 목표 금액 2천만원을 두 달여 만에 달성했다.

해당 기금은 클라우드 FC 소속 선수들을 위한 유니폼과 풋살화 구입과 함께 코치 선임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월 1회였던 정기 훈련도 늘려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각각 직책을 부여하는 등 조직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은 이들의 여정을 응원하는 운영진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

운영진 중 한 명인 이정기(50) 요한빌리지 소속 사회복지사는 “오사카 대회 참여 당시 서울 정신장애인 풋살팀 FC당당, 청주정신건강센터 풋살팀과 연합해서 출전했는데, 모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유니폼을 구매하지 못했다”며 “결국 다른 유소년팀의 옷을 빌려 입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했는데, 태극기도 달아주지 못한 게 안타까웠다”며 “개인 풋살화도 없어 대여해서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모금이 잘 돼 너무나 감사하다”고 부푼 마음

북구, ‘백댄서 논의’ 출장 공무원 훈계·주의

각 10명·2명…퍼포먼스는 ‘공무’ 인정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무대 퍼포먼스 준비를 위해 출장을 내고 사전 모임을 가진 여성 공무원들이 인사상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전국노래자랑 북구편 녹화 전날인 지난해 11월 5일 출장을 내고 모인 여성 공무원 12명 중 10명에겐 훈계를, 2명에 대해 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훈계와 주의는 징계 수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 기록에 남는다.

감사 결과 이들은 전국노래자랑 북구편 녹화 당시 퍼포먼스를 펼치기 위해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한 출장 신청서에는 관내 취약지 점검과 행사 지원 등을 기재했는데, 북구는 실제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출장을 낸 것만 문제 삼았다.

때문에 녹화 당시 무대에 오른 여성 간부 8명 중 1명은 사전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터라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실제 퍼포먼스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논의에 함께 한 5명은 처분 대상이 됐다.

북구 관계자는 “행사 당일 퍼포먼스와 함께 이뤄진 뒷정리 등 활동 자체는 공무 목적이 출장으로 볼 수 있다”며 “사전 모임이나 백댄서 역할을 한 것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위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6일 광주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선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가 진행됐는데,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무대에 선 문인 구정장의 백댄서 역할을 해 적절성·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일었다.

/윤찬웅기자

‘화정아이파크 봉괴’ 4주기 추모기간 운영

6명이 죽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봉괴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추모 기간이 운영된다.

1일 화정아이파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5~11일을 추모 기간으로 두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행사를 이어간다.

세부 행사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구청, 광주시청, 광주대표도서관 봉괴 현장, 5·18 민주광장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참사 당일인 11일 오후 3시에는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연다.

유가족협의회는 추모식 전후로 ▲HDC현대산업개발 규탄대회(오전 10시) ▲2025년 산재 사고 사망자 위령제(오전 11시) ▲광주 정치권 규탄대회(오후 1시) ▲계도 행진(오후 4시) 등을 진행한다.

/이연상기자

檢, ‘직권남용’ 이정선 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이 교육감 “위법 수사·검찰권 남용”

고교 동창을 감시관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 교육청이 감사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 채용될 수 있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2024년 시교육청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20명 안팎의 5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로부터 20일 만에 검찰이 기소하자,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짜맞추기 수사, 위법한 인지·별건수사 등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교육감은 “경찰수사로 정리된 사건을 선거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정치 검찰의 전형적 행태”라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밝히고 기소가 왜 부당한지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평가 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A(50대) 사무관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안재영기자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